

본업찰 참여도 못하고... 결국 물 건너간 광주은행 지역환원

능장·독주... 광주상의 책임론 빗발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이 결국 좌절되면서 광주상공회의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자본에 의한 지역환원을 자신하던 광주상의가 광주은행 매각 최종 입찰제안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지역 여론은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의 '리더십'을 겨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9면>

광주상의가 주축이 된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는 23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최종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사모펀드(PEF) 결성에 실패, 지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공색한 변명만 남겼다.

지역환원 과정을 주도했던 광주상의는 당장 '무능'하다는 지역민의 비판에 직면했다. 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인수절박이 유출될 수 있다'며 '노가림식' 행보를 거듭했다. 본업찰 일주

光銀조합과 공조 거부... 사모펀드도 불발
지역여론 외면한 밀실 정보 비난 잇따라
지역 토폴 뭉친 경남은행 인수위와 대조

일 전에서야 큐캐피탈파트너스를 적격 GP(무한책임사원)로 선정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등과의 연대는 배제됐고, 사모투자회사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역 여론은 무시했다. 그리고 본업찰 사흘 전, 큐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인수 추진 중단 답변을 듣고 대안 마련도 못한 채 '허둥지둥' 났을 뿐이었다.

지역 금융업 종사자들은 광주상의 집행부의 정보 및 준비 부족을 질타

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광주은행 매각을 두고 예초 사모펀드의 가담을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거액의 배당금을 먹고 된 '롤스타'의 행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상의는 지난 16일에서야 사모펀드사를 선정, '인수를 위한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했다.

23일 경남은행 인수 본업찰에 참가한 것은 사람 컨소시엄의 경우, 인수 추진 사모펀드와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부산은행, 대구은행까지

참여하며 지배구조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상공인연합회는 사모펀드와 소수의 지역기업만으로 인수자금문제를 해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뿐이다.

앞서 광주상의는 입찰참여에 대한 규정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예비입찰에서 탈락할 뻔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 구성을 권유하면서 본업찰 참여자격을 겨우 얻기도 했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상공인 연합이 인수를 희망하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사주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자본력 등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10년부터 지역환원을 주장하던 광주상의가 본업찰 참여조차 못한 것은 지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열차운행률 70%대... 승객 불편 가중

코레일 "기관사 등 500명 채용 대체 투입"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광주·전남 민노총 규탄집회

철도노조 파업 15일째인 23일 열차운행률이 파업 이후 최저수준인 70%대까지 떨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기사 3-4면>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동계 등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선 철도파업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전동열차가 85.7%로 감속운행됐다. 광주지역

KTX(71.4%)·새마을(40%)·무궁화호(76.6%) 등 평균 운행률은 62.7%였다. 감속운행에 이어 이날 새벽 3시 10분께 경부선 상행선 대구역~지천역 구간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작업용 열차가 탈선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운행 정상화를 위해 신규 인력 5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사 300명,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데 이어 이날 코레일의 채용 발표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 새누리당사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박근혜 정권과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키자 국민철도 박근혜 퇴진" 등의 스티커를 당사에 붙이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계란을 투척했다.

이들은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침탈은 전면전 선포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광주본부는 오늘 확대간부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오는 28일 '100만

시민행동의 날'에 상경,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 조합원 수백명도 이날 오후 3시에 순천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의료원 오거리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7년10개월만에 노동계가 모두 빠져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모두 끊기게 됐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61 광주일보 ABC협회 인증
창사 61주년 호남 최대 발행부수
since 1952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S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근육병 앓는 3형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23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사는 최점수(41)·조나영(여·33)씨 부부의 집에서 소방관이 장래희망인 최현민(12·사진 오른쪽)군과 최한결(10·가운데)·최해울(7) 형제가 관산소방서 소방대원(오른쪽부터 박대섭·김영윤·주남주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니랑기자 mjna@kwangju.co.kr

꿈에 그리던 소방관 되다

최현민·한결·해울 형제
소방서 견학·체험·만남
누워서만 꾸는 꿈, 현실로

하얀 얼굴에 수줍음이 가득한 최현민(12·광주은혜학교 6년)군의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다.

연구원·교사 등 소방관보다 육체적 노동이 상대적으로 덜한 직업도 많지만 최군은 소방관만을 고집한다.

최점수(41)·조나영(여·33)씨 부부는 이런 아들이 마냥 귀엽고 대견하다. 그러나 최군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중박장에 1급인 최군의 병명은 근이영양증이다.

근육병의 하나인 근이영양증은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결핍으로 근력이 떨어지다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최군의 병세(病勢)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악화하고 있다.

최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있지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들이 셋인데,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

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민(12·광주은혜학교 6년)군의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다.

최현민(12·광주은혜학교 6년)군의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최군의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형제를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저소득층 아동이 바라는 꿈을 돕기 위한 '드림 산타' 후원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소방본부가 오는 26일 최군 형제를 관산소방서로 초청, 소방서 견학 및 소방대원들과 만남 행사를 열어 최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화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최군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멘토가 돼 주기로 했다.

이재화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 몸이 불편한데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최군의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군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희망찬 2014 새해 아침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기원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건강의 섬 **완도**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일출을 감상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2014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기원

해맞이 축제

행사명 | 2014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해맞이축제
일시 | 2014. 1. 1(수) 06:00 ~ 08:00
장소 | 완도 일출공원 일원(완도타워)
내용 | 공연행사 : 풍물패 길놀이, 희망의 북소리
참여행사 : 신년덕담, 소망성취 연·풍선 날리기